



학도넷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발행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발행일 2015년 9월 15일 | 총권 36호 | 주소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강하2로 267 | 전화 02-720-7259 팩스 02-720-7259 | 이메일 hakdonet@hanmail.net | 편집 학도넷사무처 | 디자인 인디자인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도서관에서 생긴 특별한 인연이야기

어느 시인은 자신을 키운 건 '8할이 바람'이라고 하지만,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8할이 학교도서관모임 선생님들이다. 나의 초창기 교직생활은 사진에 빠져 바람처럼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에 나가면서 책으로 빠져들었다. 사진에서 책으로 외도를 한 것이다. 어쩌면 본업으로 간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 그 책의 시작은 중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의 중학시절은 어느 중학생들처럼 아무 생각없이 친구들과 노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다. 학교를 마치면 붉은 노을이 질 때까지 운동장에서 공을 차다가 떡볶이 등을 사먹으면서 집까지 걸어가곤 했다. 그런데 중2 때 나에게 두 명의 잊지 못할 선생님이 다가왔다. 그 중 한 분은 음악선생님이었고 다른 한 분은 사서선생님이다. 음악선생님과 함께 부산 시민회관에서 차이코프스키의 '1812서곡' 공연을 함께 관람했던 것이 나중에 피아노를 배우게 만들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사서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은 평생 책을 좋아하게 만든 인연이 되었다. 내가 기억하기로 1970년대 당시 사서선생님은 도서관을 지키는 선생님이었다. 책을 빌려주고 우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로만 알았다. 그 선생님은 사실 우리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요 유명한 수학 선생님의 따님인데, 아버지와는 달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셨고 항상 우리에게 친절하셨고 웃어주셨다. 그리고 그 당시 내가 본 어느 누님보다도 착하고 이뻐다. 그 날 이후로 나는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공차기를 하지 않았고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책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늦은 시간 도서관에는 '선생님과 나' 둘이만 있게 되었다. 나는 책을 보면서 툼툼이 사서 선생님을 보았다. 그냥 바라본 것 뿐이었다. 선생님이 말을 붙여 왔을 때도 그냥 '네'라는 단답형으로 대답했었다.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선생님께서 내가 지은 시를 보여드렸다. 그 후 선생님께서 내가 시를 좋아하는 줄 아셔서 몇 권의 시집을 보여주셨고, 내가 좋아하는 시를 적은 공책에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한 편 한 편 그림과 함께 이쁘게 꾸며주셨다.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공책에는 '밤이 새도록 퍼붓던 그 비도 그치고'

로 시작되는 이상화의 <비 갠 아침>이라는 시부터, '날은 저물고 눈이 내려라'로 시작되는 <희망>이라는 시와 예쁜 소녀의 옆모습 아래로 '삶이란 무엇? 빛이며.....'로 시작되는 <소곡>이라는 시와 김영랑의 <오매 단풍들것네>, 유치환의 <행복> 등이 적혀있다. 선생님께서는 다양한 필체로 이쁘게 적어주셨다. 그런 인연으로 시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고, 대학도 문예창작학과에 가서 시를 배우게 되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의 매일 학교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낸 것이다. 시작은 이쁜 사서선생님이었지만 어느 새 나에게 책이 다가와 있었다.

그 후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다닐 때, 가출 등 잠깐 방향을 할 때도 내 손에는 항상 책이 있었다. 책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때 선생님이 했던 말씀이 어렵듯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책은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고.....' 중학교 때 그 기억으로 버틴 것이다. 특히 고3때 대학입시를 앞두고서는 왜 그리 책을 읽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대학입시가 끝나고 '인수'라는 친구와 함께 단 둘이서 해운대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라면과 책으로 1주일을 밤낮 구분 없이 보냈다.

그 후 자유로운 영혼으로 도시를 떠돌다가 학교도서관 모임에서 다시 책을 체계적으로 읽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혼자 좋아하는 책만 읽다가 함께 읽으면서 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책이 있는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책이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 나에게 중학교 사서선생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시로 다가왔다. 시집으로 시작된 책들은 어느새 소설로 풍성해졌고, 삶으로 파고들었다. 늦바람에 푹 빠지게 된 사진마저도 잠깐이지만 밀어내게 해주었다. 물론 이제는 '사진과 책' 내 삶을 버티게 해주는 친구가 되었지만, 가끔 책을 읽다보면 그 선생님이 떠오른다. 선생님이 나에게 책이었다.

주상태 | 중대부중 국어교사/학도넷 자문위원

차례

01_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02_ 학교 도서관 탐방

03_ 나의 길, 학교도서관

04_ 추천도서

책모임 <츄잉북>이 권하는 책

06_ 학교 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오승희 / 이정옥 / 조영선 / 송훈섭

08_ 학도넷 소식

학도넷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또는 사서교사, 학부모, 학생, 문헌정보과 교수, 출판인 등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연대모임입니다. 학도넷 운동은 평등교육과 문화운동의 시작입니다.

학도넷소식지는 학도넷 운동의 일환으로 도서관과 독서운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학도넷 회원(준회원 이상)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실 분은 학도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시오. www.hakdo.net

학교 도서관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보낼 곳 : hakdonet@hanmail.net

학교 도서관과 미역국 한 그릇

- 송명원(경북 봉화 물야초등학교 교사)

그 날도 여느 날과 똑같았다.

오후 4시 30분에 학교를 마치고 학교도서관으로 갔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달빛 도서관을 하는 날이었다. 전교생 20명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산골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달빛 도서관을 운영한지 3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다. 평소 아이들과 밤늦게까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소망했던 나는 누구의 요구도 없었지만 내 소망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달빛 도서관을 운영했다. 달빛 도서관에 참가하는 아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전교생이 20명 밖에 되지 않았고, 아이들의 집이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달빛 도서관에는 3~4명의 아이들이 참가를 하였다. 많이 참가할 때는 8명, 적게 참가할 때는 1명이 참가한 적도 있었다. 한 가지 위안이 되었던 것은 참가한 아이들은 빠지지 않고 꾸준히 참가한다는 것이었다. 그 날도 다른 날처럼 아이들에게 그림책 한권을 읽어주고, 도서관 한쪽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다. 처음에는 책 읽기를 지겨워하고 낯설어 하던 아이들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적응이 되었는지 책 읽는 시간만큼은 조용히 집중을 해서 책을 읽었다.

쉬는 시간이 되었다. 준비해 온 간식을 아이들과 나누



어 먹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지만 역시 아이들은 뛰어노는 것을 더 좋아하였다. 쉬는 시간을 마치고 다시 책 읽는 시간을 가졌다. 방금 전까지 읽다가 놓아둔 책을 손에 들고 막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더 이상 도서관에 올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읽던 책을 내려놓고 바깥으로 나가 보려고 일어섰다. 그 때 도서관 뒷문이 열리면서 생각지도 못한 학부모님 세 분이 도서관으로 들어오셨다. 손에는 아이들 줄 간식인지 과자며 음료수를 잔뜩 들고 계셨다.

“어~, 이 늦은 시간에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번에 우리 성규가 오늘이 선생님 생신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혼자 사시느라 미역국도 못 드시고 생일 축하도 못 받았을 건데 아이들이랑 같이 축하하러 왔어요. 매번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데 우리 형편에 따로 해 드릴 건 없고 미역국이라도 한 그릇 드리고 싶어서요.”

말은 마치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준비해 온 음식을 도서관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다. 나 보고는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셨다. 도서관 밖으로 나온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그냥 멍뚱뚱 서 있었다. 평소 생일을 잘 챙기지 않는 성격이라 약간 쑥스럽다는 생각도 들었다. 잠시 후 들어오라는 말과 함께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도서관 책상 위에는 작은 케이크 하나와 미역국과 밥 한 그릇이 놓여있었다. 아이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다. 쑥스러움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과연 이런 대접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이내 아이들과 함께 촛불을 켜고, 케이크를 잘랐다. 아이들은 학부모님들이 준비해 온 케이크와 과자, 음료수를 맛있게 먹었고 나 또한 소담스레 차려진 밥과 미역국을 맛있게 먹었다.

그 날은 여느 날과 달랐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달빛 도서관을 마치고 자취방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 한쪽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예전부터 꼭 한번 해 보고 싶은 소망이었던 아이들과 도서관에서 책 읽는 활동이 책 읽는 기쁨과 함께 또 다른 소중한 선물을 가져다 준 날이었다. 학교 도서관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준 날이었다. 아이들과 함께한 달빛 도서관은 다음해에 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개인적으로 가정을 꾸리는 등의 일로 그 한 해로 끝났지만, ‘학교 도서관’ 하면 평생 떠올릴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 주었다. 그리고 그 때 학교 도서관에서 맛있게 먹은 미역국 한 그릇은 지금까지도 내가 학교 도서관을 열심히 찾고,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15(세종출판벤처타운)
전화 031-944-9680 팩스 031-945-9680 이메일 goraebok@naver.com

돌무더기

안재희 글 | 이승태 그림 | 48쪽
297×210mm | 12,000원 | 초등학교 저학년



돌무더기에 담긴 소망들이 깨어나는 이야기!

“돌무더기 위에 돌을 올려놓고 소원을 빌면,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대.” 이 책은 “승례문에서 사라진 어처구니”의 저자가 어렸을 때부터 소망했던 꿈을 이루게 된 과정을 진솔하게 쓴 책입니다. 산길을 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돌무더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걸어서 도서관에 간다

-김은영(파주 교하도서관 이용자/주부)

친한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배, 잘 있었어?”

“그래, 정현아, 너도 잘 지냈지?”

“이사한 지 얼마나 됐지?”

“벌써 8개월 넘었다.”

“정말? 와, 시간 빠르네. 아는 사람은 좀 생겼어? 외롭지는 않아?”

“응, 외로울 겨를이 없다. 도서관 다니느라.”

“도서관?”

“응. 우리 집에서 걸어서 딱 20분 거리에 도서관이 있거든. 그런데 가는 길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공원에서 이어지는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도서관이 나와. 열람실도 아늑하고, 사서 선생님들도 친절해. 도서관에서 하는 강연들도 다양해서 열심히 듣고 다니다. 게다가 인문학 강좌를 들었는데 도서관에서 그 후속 모임으로 고전낭독 동아리를 만들어서 나도 가입했어. 이래저래 일주일에 서너 번은 도서관에 간다. 꼭 학교 다니는 기분이야.”

“멋지게 사네!”

나는 후배에게 끝없이 우리 동네 도서관 사랑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요새 사람들을 만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도서관 사랑을 한다. 또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도서관 길을 산책하고 도서관을 구경시켜 준다.

20년 살던 고향 같은 곳을 떠나 이름도 낯선 이곳 파주 교하로 이사를 했다. 그야말로 아는 사람 한명도 없는 곳이었다. 그런데 집 정리를 대충 마친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다 보니 도서관이 보였다. 숲길로 이어져 있는 도서관에 들어가니 마음이 편안했다. 도서관 프로그램을 보니 들을 만한 강좌들이 눈에 들어왔고, 산책하듯 20분을 걸어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다.

인문학 강좌가 끝난 후 도서관에서 고전 낭독 동아리를 꾸린다고 했다. 학도넷 후원의 밤에 갔을 때, 고미숙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주제가 바로 소리내어 읽는 낭송의 중요성이었다. 그런데 고전을 낭독하는 모임이라니 좋을 것 같았다. 8명이 모였다. 혼자서는 입을 엄두가 안 나는 고전을 함께 낭독해보자고 했다. 고전이란 제목은 들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절대로 안 읽는 책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은가.

첫 번째 낭독 고전으로 정한 책은 유럽 문명의 뿌리가 되는 호메로스의 대 서사시, 일리아스. 일단 책의 두께가 대단했다. 700쪽 정도의 서사시라. 24권으로 되어 있어 주 1회 2권씩 읽으면 3개월에 마칠 수 있겠다고, 다 읽으면 정말로 뿌듯하겠다고 기대와 다짐을 나누었다.

“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영화 ‘트로이’를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단 의견을 듣고 고전

낭독 회원이기도 한 사서 선생님께서 도서관 소극장을 빌려 ‘트로이’를 상영해 주셨다. 오래 전 본 영화인데도 영화 속 주인공 아킬레우스 역의 브레드 피트와 헥토르 역의 에릭 바나는 여전히 멋있어 보였다. 우리는 누가 더 멋진 수다를 떨며 낭독 첫날을 맞이했다.

소리 내어 읽는다는 게 다들 조금은 낯설고 부끄러웠다. 소리가 작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읽다가 자꾸 틀리기도 하고, 남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도 열심히 성의 있게 모임을 이어 나갔다. 그리고 회가 거듭될수록 낭독의 힘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각자의 목소리 톤과 속도대로 읽었는데 점점 톤과 속도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던 중에 도서관에서 성우 서혜정 선생님의 낭독에 대한 강연회가 있었다. 낭독 모임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 와 닿는 강의였다.

“자신의 목소리가 공간을 통해 다시 자신의 귀로 들릴 때 편안해지고, 텍스트를 더 잘 이해하고, 글쓴이나 등장인물들과 더 잘 교감할 수 있어요. 자꾸만 소리 내어 읽다 보면 자신의 목소리를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는 거기에 더하여 생각했다. 함께 낭독하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귀 기울여 듣다보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좋아지고, 좋은 소리를 닮아가고, 자연스럽게 소통과 화합을 이루며 우정을 쌓게 된다고! 이제 우리는 일리아스 낭독을 3개월 만에 끝내고 오뒷세이아 낭독을 시작했다. 함께 읽어준 친구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며 서로 고마워하고 자축했다.

점점 함께하는 낭독이 좋아져 저녁에도 모여 또 다른 책을 읽어보자고 했다. 시간 되는 세 명이 모였다. 함께 읽기의 좋은 점은 두 명만 되어도 모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돈키호테를 읽기로 했는데 얼마 전 도서관에서 진행된 김영진 선생님의 ‘고전 속 서양 읽기’에서 근대를 살펴볼 수 있는 책으로 소개한 책이다. 어렸을 때 다이제스트로만 읽었던 돈키호테를 완역본으로 읽으니 킥킥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어느 날은 돈키호테를 낭독



하는 모임이 있다는 얘길 듣고 김영진 선생님도 참석 하셔서 함께 낭독의 즐거움을 맛보셨다.

“선생님,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중저음의 남자 낭독이 듣기가 좋네요.”

“부끄럽네요. 소리 내어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읽으니 새롭네요.”

저녁의 낭독은 더 집중력이 생기는 것 같다. 도서관 닫는다는 벨소리를 듣고서야 우리는 몸을 일으킨다. 낭독모임 친구와 도서관을 나서며 이야기를 했다.

“도서관이 없었다면 아마 난 너무 외로웠을 거예요.”

“맞아요.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나 요새 도서관 다니잖니!’ 하며 막 자랑해요.”

“나도요. 낯선 곳에 이사하고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준 도서관이 정말 고마워요. 강의를 들을 때 보면 어르신들도 많아서 놀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동아리도 있구요. 그런 모습을 보며 ‘아, 나도 평생 배우고 책 읽으며 지역 동아리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함께 의미 있는 일도 하며 살아야겠구나!’ 생각해요.”

“그러게요. 서혜정 선생님 말처럼 우리가 이렇게 낭독하다 보면 낭독 시대를 낼 수도 있고, 뭔가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꿈꾸게 되네요!”

책만 빌려 보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돕는 도서관. 사람과 사람이 만나 함께 모여 뜻을 모으고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자리를 만들어주는 도서관. 파주 교하에 와서 내가 누리고 있는 도서관이다.

공간도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름다운 이 도서관을 학교 다니 듯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보다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는 운동화에 백팩을 메고 아름다운 숲길을 걸어서 친구들을 만나러 도서관에 간다!



책모임 <츄잉북>이 권하는 책-나는 이 책이 좋다!

<츄잉북>은 2014년 3월에 시작된 대학생 독서모임이다. 대학생 독서 모임이란 게 각 대학마다 매우 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서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였다. 매주 모여 한주는 책을 읽고, 그 다음 주는 각자 서평을 써와 합평을 한다. 처음 모임엔 모두 대학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군인, 직장인, 대학원생 등으로 신분이 바뀐 자도 있다. 한 번에 열 명 정도가 모이는데, 거쳐 간 모든 인원은(한 번 온 사람도 포함해서) 삼십 명 정도다. 모이는 시간은 학생인지라 학기마다 바뀐다. 이번 학기는 일요일 오후 여섯시 반이다.



농담
밀란 쿤데라 지음 | 방미경 옮김 | 민음사
432쪽 | 1999년

살다보면 인생이 코미디영화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영화 속의 배우인 내 자신은 진지하게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영화 밖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런 우리의 삶을 닮은, 심각하면서도 유쾌한 장편소설이다. 한없이 진지할 수밖에 없는 한 남자의 복수극이 어떻게 코미디로 변해 가는지 지켜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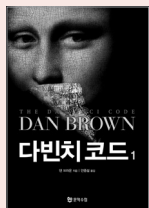
(오영광/ 군인. 공군)



눈물은 왜 짠가
함민복 지음 | 책이있는공경 | 272쪽 | 2014년

“시인이야 종이에 시를 써 시집을 엮지만, 당신들은 시인의 가슴에 시를 쓰니 진정 시인은 당신들이 아닌가요.” 작가가 살면서 가슴에 아로 새긴 사람들, 풍경들, 이야기들이 내는 짠맛, 단맛, 신맛, 쓴맛이 우리 마음의 혀를 자극한다. 작가의 삶이 우리네 삶과 닮아 있기에 그 맛이 은은하게 그려면서도 선명하게 다가온다. 정성껏 짠43개의 산문들을 음미해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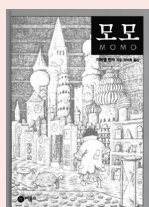
(김규범 / 대학생. 행정학)



다빈치코드 1-2
댄 브라운 지음 | 안종설 옮김 | 문학수첩
392쪽 | 2013년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작품에 감춰진 충격적인 비밀을 밝혀내는 이 소설은 마치 영화처럼 눈앞의 장면을 생생하게 글로 풀어내고 있다. 책을 접하기 어려워하던 내게 책을 읽는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책이다. 만약 책을 읽는 것이 어렵고 지루하다면 이 책부터 시작하시라. 독서 입문용으로 최고의 책이다.

(최아영 / 대학생. 정책학)



모모
미하엘 엔데 지음 | 한미희 옮김 | 비룡소
368쪽 | 1999년

바쁘게 시간을 쪼개 쓰며 일하는 직장인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알뜰하게 아낀 그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을 위한 것일까? 바쁜 시간 속에서 그 목적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욕심 없이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꼬마 모모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정신없이 일에만 시간을 쏟는 삭막한 현대인에게 일침을 가한다.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아이 같은 몽환적인 스토리가 돋보인다. (이선우/ 대학원생. 교육학)



몬스터 카니발
안 소피 브라스 지음 | 김민정 옮김 | 문학동네
246쪽 | 2008년

“예술사진 촬영을 위해 신체적 고통을 지닌 분을 찾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비틀린 시각을 갖고 신체적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는 조아생. 그리고 신문 구인광고를 보고 그를 찾아 가는 마리카. 이 두 사람을 통해 미와 추, 자기혐오와 나르시즘, 사랑과 증오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이다. 빨리, 쉽게 읽히면서 시선을 돌릴 수 없는 책을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박유경 / 대학생. 영문학)



비둘기
파트리크 쥐스킨트 지음 | 유혜자 옮김
열린책들 | 109쪽 | 2014년

은행 경비원 조나단은 누구와도 섞이지 않고, 자신의 작은 방에 틀어박혀 사는 것에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집 앞에 나타난 비둘기는 그의 일상을 박살내버린다. 끔찍하게만 느껴졌던 비둘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무더졌던 고독함을 느끼게 해주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선물한다. 어둠에 잠겨있는 듯 읽어 내리다, 책장을 덮으면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책이다. (이경주/ 대학생. 독서문화컨텐츠학)



살인자난감 1~3
꼬마비 지음 | 애니박스 | 216쪽 |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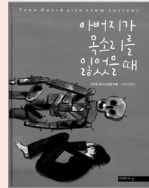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무난하고 어중간하며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이탕. 친구의 앰피쓰리가 탐나 훔쳐왔지만 자신이 그리 나쁘지도 착하지도 않은 놈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날’ 그는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탕이 살해한 사람이 연쇄 살인마라는 점. 첫 살인 이후로 이탕이 죽이는 사람은 모두 ‘천하에 나쁜 놈’들 뿐이다. 나라가 처벌하지 못한 자를 단죄하는 이탕을 과연 극악한 살인마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나연 / 대학생. 철학)



셰익스피어 전집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 | 최종철 옮김 | 민음사
628쪽 | 2014년

시대를 뛰어넘는 극작가이자 시인으로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의 작품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을 품고 있는 사람, 결혼제도에 반기를 드는 사람, 사랑에 목숨을 거는 젊은이들이 있다. 여러 장르를 아우르는 그의 작품들에 담긴 고민들은 현대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다. 고민의 실마리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박유경 / 대학생. 영문학)



아버지가 목소리를 잃었을 때
유디트 바니스텐달 지음 | 이원경 옮김
미메시스 | 280쪽 | 2013년

아주 소중한 누군가를 잃게 되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다비드는 어느 날, 후두암 진단을 받게 된다. 아홉 살 난 그의 딸 타마르와 두 번째 아내 파올라는 다비드를 떠나보내면서 만남과 이별, 삶과 죽음을 끝없이 경험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시선과,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한 인간의 심리를 속삭이듯 보여주고 있다. (이경주/ 대학생. 독서문화컨텐츠학)



엘저년에게 꽃을
다니엘 키스 지음 | 김유경 옮김 | 동서문화사
352쪽 | 2006년

더 똑똑해질수록 더 행복해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의문에서 출발한 소설이다. 뇌수술을 받고 지적 장애인에서 천재가 된 찰리의 일기를 통해, 천재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진 비극적인 면은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날수록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고통도 늘어나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오상은/ 대학생. 경제학)



인간실격
다사이 오사무 지음 | 김준미 옮김 | 민음사
191쪽 | 2004년

“부끄러운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영원히 잊히지 않을 인간실격의 첫 문장은 읽는 사람에게 제각기 천차만별의 감상을 불러일으킨다. 세상은 주인공 요조를 사랑하는 사람과 경멸하는 사람 둘 중 하나로 나눠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약한 패배주의와 날카로운 통찰력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다 끝내 발을 헛디디고 마는 요조의 줄타기가 슬프고도 외롭다. (오상은/ 대학생. 경제학)



죽은 시인의 사회
N.H클라인baum 지음 | 한은주 옮김 | 서교출판사
343쪽 | 2004년

부를 X축, 명예를 Y축으로 하는 그래프를 그려 서로 다른 사람의 성공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고 하자. 더 바깥쪽에 점이 찍힌 사람의 인생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성공했다고 인정받는다면 당신은 이에 동의하는가. 소설의 주인공 존 키팅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이렇게 말해줄 것이다. “현재를 즐겨라, 인생을 독특하게 살아가라!” 당신의 지금을 확인해보라.

(김규범 / 대학생. 행정학)

내가 살아가는 힘 “도서관”

- 김나명(대구 달성군립도서관 이용자)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 박기, 마빡이 마빡이……”

어느 개그프로에서 흘러나오는 노랫말처럼 제가 어렸을 적에는 학교에서 돌아오기가 무섭게 동네 친구들과 하루 종일 뛰어노느라 정말 하루가 너무나 짧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도 무서워 못 쳐들어온다는 중학생 두 딸을 둔 주부입니다.

제가 어릴 땐 넉넉지 않은 집안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접할 수 없었지요. 그 때 친구들이 많이 읽던 만화책조차도 ‘힘들게 왜 지루한 책을 읽는 걸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책을 멀리하며 지냈습니다. 생각해 보면 결혼을 하고 예쁜 딸을 낳아 키우면서 육아와 육아 잡지들을 시작으로 책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에게 양질의 다양한 책을 많이 읽어주려는 마음으로 커다란 장바구니 가방과 함께 매주 버스를 타고 구립도서관에서 책을 20권씩 빌려와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 자기 계발서, 소설책들을 많이 읽게 되었지요.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다가 동화구연, 독서지도, 등 다양한 교양강좌도 듣게 되면서 책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틈틈이 직장생활도 하며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왜? 남들이 말하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고, 모두 건강하고, 아이들도 예쁘게 잘 자라고, 착실한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차지 않는 걸까?’,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도대체 무엇일까?’, ‘잘 살아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왜? 사는 걸까?’ 등등 제 머릿속은 좀처럼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또 책을 들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울증 아니냐며 병원에 가보라는 얘기까지 들으며 도서관에서 나의 질문과 관련 된 책들을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법정스님의 책 들을 즐겨 읽으면서 저는

차츰 나의 성공, 나의 행복만을 바라던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행복도 생각해 보는 “이타적인 삶”에 대해 알게 되었고, 남을 위한 봉사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장애우를 돌보는 일이나. 노인들을 위한 여러 활동들은 너무나 힘들어 보였어요. 다른 봉사활동들도 선뜻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잘 할 수 있는 일, 주부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는 뭐가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는 도서관까지 거리가 멀어 버스를 타고 많이 걸어야 했지요. 무거운 책까지 한 가방 들고 다녀야 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 도서관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 그럼 우리 아파트에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와 관련된 책을 찾아 읽게 되었고 책에서 힘과 용기를 얻어 불안했던 마음을 떨쳐내고 주민도서관 만들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실, 입주자 대표와 의견을 나누고, 아파트 주민들의 자필 동의서를 받은 후 뜻을 함께할 이웃 주민들을 모아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입주자 대표회의에 떨리는 마음으로 참석하여,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도서관을 만들자며 정식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주부들이 힘을 모아 집에서 잠자고 있는 책들, 같이 읽고 싶은 책들을 하나 둘 모으기 시작했고 차츰 동사무소와 해당 관공서 등을 찾아가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을 방문하여 배우며 차곡차곡 준비해 나갔습니다.

2010년 9월, 1년여의 준비 끝에 꿈에 그리던 유니버시아드 선수촌2단지 주민도서관을 개관하게 됩니다. 지역 농어촌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활동 및 단지 내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문화 활동들도 함께 진행하며, 도서관에서 독서뿐 만 아니라, 해맑은 아이들과 주민들



의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 살고 있어 아쉽게도 제가 직접 이용할 수는 없지만, 주민 도서관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크나큰 기쁨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무모한 꿈이 정말 거짓말처럼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 이웃들, 또 아이들과 함께 직접 경험해보며,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엔 못할 게 없겠구나, 그리고 더욱더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힘든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웃과 한마음으로 함께 했기에 즐거웠습니다.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나누고자 시작한 일이 지나고 보니 더 많은 것을 얻게 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요즘도 신랑이랑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나서 일주일에 두, 세 번 정도 연애했 때처럼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도서관에 갑니다. 일주일에 한번 있는 ‘고전 읽기 모임’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혼자 읽을 때 보다 함께 하기에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사람이 그림고 외로울 때, 아님 또 다른 나를 찾고 싶을 때 도서관으로 오세요! 당신의 힘이 되고 든든한 친구가 되고, 잃어버린 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오늘도 책과 함께 도서관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사서
글자는 절대 읽지 마!

오송희(화성 송화초등학교 사서)

지난 학기였다. 고학년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했다. “선생님 ○○○ 도서관에 보내니 책 좀 권해주세요. 책을 전혀 안 읽어요. 어떻게든 읽히려 했는데 도무지 책을 안 읽어요.” 잠시 후 한 사내아가 도서관으로 왔다. 얼굴을 보니 얇전해 보이는데……. “우리 선생님이 도서관에 가보래요.” 한다. 그래서 이름을 묻고 좋아하는 것이 무어냐고 또 묻고, 책읽기가 왜 싫으냐고 물어봤다. “선생님, 책은 너무 재미없어요.” 그러다. “우리 도서관에 책이 몇 권쯤 될 것 같아?” 하고 물었다. 머리를 긁적이며 “글쎄요……” 한다. “너, 운동 좋아하니?” 하고 내가 물었다. “네, 축구 좋아해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 나는 서가로 갔다. 책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나는 사진이 많은 책을 권한다. 그래서 ‘비주얼 박물관 시리즈’ 중에서 <스포츠>와 <축구> 라는 책을 골라서 아이에게 보여 주었다. “○○아! 넌 운동도 좋아하겠지만 잘할 것 같아. 이 책에는 사진이 많고 설명은 작은 글씨로 되어있어. 글씨는 읽지 말고 그림(사진)만 봐. 오늘은 이 두 권의 책을 보는데 “글씨는 절대 읽지 말고 사진만 봐야해!” 아이는 책 두 권을 가지고 교실로 갔다. 오후가 되어 두 권을 가지고 도서관에 왔다. “다 봤어? 재미있었니?” “네. 다 봤어요.” “사진만 봤지? 글자는 읽지 말라고 했는데……” “네. 그런데 선생님! 왜 글자는 읽지 말라고 했어요?” 한다. “너는 글자책 읽기 싫어한다며? 그래서 사진만 보라고 한 거야. 사진을 본 것도 네 머리에서는 기억할 수 있어서……” “저는 이런 책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 이 책 다시 빌려도 돼요?” “그럼! 되고말고, 다른 책도 있는데……” 하면서 축구 선수에 관한 좀 쉬운 책을 골라서 권했다. 그러면서 나는 “○○아! 이 책은 글자가 좀 많거든 맨 앞의 목차에서 네 맘에 드는 것만 읽어.”

그 아이는 사진만 보았던 <스포츠>와 <축구>라는 책과 축구선수에 관한 책을 빌렸다. 그리고는 그 이틀 날 다 읽었다며 반납을 하러 왔다. 그래서 나는 그 주제들과 연관된 책을 찾아서 다시 권해 주었고 아이는 계속 책을 빌려러 왔다. 얼마 후에는 자랑스럽게 내게 말했다. “선생님! 저 이제 책 잘 읽어요.” “그래? 정말 대단한 변화인걸. 이번에도 책 골라 줄까?” “아니요. 제가 골라볼게요.” 나는 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도감이나 사진이 많은 책을 권한다. 사진도 말을 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사진을 통해서 이해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글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어서다. 그리고 한 편으로는 아이들의 청개구리 심리도 이용하느라 책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책을 권하며. “글자는 절대로 읽지 말고 그림만 봐!” 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의아해 하면서 책을 빌려간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 글자는 읽지 말고 그림만 봐라!” 그림만 봐야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 아이는 그림만 볼 수는 없다. 사진이나 그림을 보다보면 자연히 설명이 궁금해질 테고 문맹이 아닌 다음에야 글자를 볼 수 밖에 없다. 어떻게 그림만 볼 수 있나? 그림이나 사진을 보다 보면 자연히 글자(설명)를 읽을 수 밖에 없으니…… 어쨌든 ○○은 나의 마수(?)에 걸려들어 지난 학기에 꽤나 많은 책을 읽었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사서
나에게 도서관은 열쇠다

이정옥(경기 고양 서정초 사서)

나는 지금 40대 초반이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도서관을 만났다. 수많은 책이 신기했고, 책이 들어가는 책장도 거대하게만 보였다. 도서관이 만들어지던 날 창문 너머로 책이 꽂히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그 후로 재미와 호기심으로 도서관을 들락거렸다. 여름방학이 되면 시골마을은 너무 지루하다. 친구들과 놀다놀다 지쳐서 찾는 곳이 도서관이었다. 어린 시절의 나에게 도서관은 공부라 아닌 재미로 찾는 오락실 같은 곳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도서관으로 쫓르르 달려갔다가 밥 먹을 때 집으로 쫓르르 들어온다.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보니 학교 아저씨가 나에게 열쇠

를 쥐어주었다. 아침 댓바람에 열쇠 달라고 찾아가니, 주무시다가 일어나시는 것이 귀찮으셨을 거다. 출근시간이 있을텐데 그런 것 생각않고 아침 식전부터 찾아오는 나에게 싫은 내색 없이 열어주신 걸 보면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시다. 그 후로 방학 때 도서관 문을 여는 사람은 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도서관을 찾은 이유가 책이 아닌 문 여는 재미가 아니었을까 싶다. 철컥 문 열면 아무도 없는 도서관이 잠에서 깬다. 하얀색 페인트칠을 한 깨끗한 책장 사이를 거닐다보면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만의 공간, 비밀이 생긴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친구들이 ‘어, 도서관 문 열렸네’ 하며 들어오면 마음이 뿌듯했다. 읽은 책은 그림책 전래동화, 일본애니메이션 영향을 받은 명작 애니, 과학의 원리도 모르고 뒤적었던 과학책, 세계위인, 역사만화 등등 두루두루 뒤적인 것 같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도서관이 없었다. 초등학교에서는 다 떨어진 기증도서라도 읽었지만, 중학교에서는 도서관이 없으니 서점을 찾아야 했다. 다행히 좋은 친구를 만나 친구와 함께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어린왕자』, 『데미안』, 『키다리아저씨』 등 누구나 한번쯤 읽었을 법한 책을 읽었다. 생일날만 되면 도서상품권과 책을 선물했던 친구 덕분에 당시 유행했던 고전을 겨우 읽고 지나간 것 같다. 한동안 도서관과 멀어진 생활을 하다 아이엄마가 되고 나서 나는 다시 도서관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행복감을 주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양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손에 잡히는 대로 마음껏 들춰봤던 책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있다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다. 사람 이름이 너무 길어서 읽었던 기억이 난다. 다른 나라 사람 이름은 이렇게 길구나 싶었다. 인생이 어떻게 살이 어떻게 하는 얘기들이 나와는 먼 꿈같은 얘기였다. 어떤 때는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봤다.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늘 이해는 쉽지 않았다. 어른이 된 지금 어린아이가 무슨 명상록을 보나 싶지만, 그것이 나의 성향이었나 보다. 지금도 소설책보다는 시나 명상록, 잡언서 등에서 삶의 에너지를 얻는 편이다. 어린시절을 되돌아보니 두 가지 생각이 든다. 사람마다 다른 점이 있을 것이지만, 적어도 나는 도서관을 찾은 이유가 책만은 아니었다는 점, 또 하나는 어른들이 골라준 책이 아닌 자신이 직접 고른 책 속에서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오래 기억하려 애썼다는 점이다. 때문에 책을 수서하고 배가하고 대출하는 지금의 나에게 멀리 보고 해결해야 할 숙제가 여럿 있다. 도서관이 다양한 문화와 사람을 품어야 한다는 것, 아이들이 무심코 집어들어도 좋을 책을 구비해놓아야 한다는 것,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고를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사서교사

~ing

조영선(왜관중앙초등학교 사서교사)

도서관, 도서관이란 이름이 내 안에 맴돌면, 어떤 한 추억이 떠오른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것처럼.

초, 중, 고등학교까지 다행히 나의 학창시절의 기억엔 '도서관'이 항상 어느 한 켠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영화 <러브레터>처럼, 낭만적인 공간도, <여고괴담>처럼 무서운 공간도 아닌, 일상의 공간으로. 즐겨 찾던 공간으로.

도서관에 대한 첫 기억은 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군무원인 아버지를 따라 강원도에 살게 되었는데, 군부대가 많았던 환경 덕에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 학교에서 영화도 볼 수 있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무려 25년 전, 강원도 인제군의 기린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점심시간에만 문을 열던 도서관이 있었다. 도서관 안에 학생들이 뻐뻐이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이 엄하셨는지, 아니면 책에 빠져 그랬는지 도서관 안은 아주 조용했다. 나는 만화책만 주로 읽었다. 호돌이가 그려진 세계여행에 관한 만화책을 아주 행복하게 읽었던 기억이 난다. 그 시절이 88올림픽을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그런지 호돌이 캐릭터가 그려진 만화책이 많이 발간되었던가보다. 얼마나 집중해서 읽었던지! 어렸지만 몰입의 기쁨까지 느꼈던 것 같다.

중학교 시절에 나는 조금 엉뚱하고,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도서관의 책에 대하여, '이 책은 우리가 세금을 내서 산거니까, 내가 한권 가져도 돼!' 이런 엄청난 생각으로, 학교도서관의 책을 한 두 권 훔친 적이 있다.

고등학교 시절도 마찬가지였다. 공공도서관의 책은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학교도서관은 도난방지시스템이 없었으니, 책을 가져가기 쉬웠다. 교복 치마 허리춤 쭈몰래 한권을 넣고, 그렇게 가져온 책은 보물단지 모시듯, 줄을 쳐가며 읽어댔다. <서양문명의 역사>라는 책이었나? 고고학자가 될 거라면서 열심히도 읽어댔다. 책도독은 도둑도 아니라는 옛 이야기를 행동화한 것이었다. 많은 책을 가져간 건 아니고 두 세권 정도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자기합리화가 아니었나 싶다.

중·고등학교 시절의 학교도서관은 일정시간에만 열었기 때문에, 자주 이용할 수 없어 학교 앞 공공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였다. 나는 소심한 학생이어서 대출을 할 때면 괜히 심장이 쿵쿵 거리곤 했다. 도서관의 사서선생님은 조금 고리타분하고 무서워보였다. 그래도, 책을 읽는 재미가 상당하여 그러한 심장의 두근거

림을 극복하고서 주말이면 책을 빌리러 갔다. 표지가 두꺼운 세계문학전집, 연애소설, 헤르만 헤세의 책들. 그 시절의 읽은 책이 나머지 내 인생의 전부를 지탱할 정도라고 할 정도로, 중고등학교시절에 읽은 책은 말랑말랑한 나의 뇌와 감성을 자극하였다.

도서관에 대한 안 좋은 기억도 있다. 한번은 도서관 문 앞에 '열람 불가'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대출이 안 되고 '책을 보는 것은 되는 것'인줄 알고, 서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사서직원이 '열람 안돼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잠깐 읽고 가려고요.' 했는데, 사서직원들끼리 수군거리며 '열람이 뭔지도 모르나봐.'라고 속삭이는 것이었다. 나는 그만 기분이 상해버렸다. '열람'이 뭔지 모를 수도 있지! 참나! 친절하게 알려줄 수 없나? 그 도서관은 부여도서관이었다. (이제야 밝히는 소심한 복수!)

그러던 내가 '사서교사가 되어 초등학교도서관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있다. 초·중·고 시절의 여러 가지 도서관에 대한 좋은 기억과 살짝 안 좋은 기억은 사서교사가 된 나에게 좋은 양분이 된 것 같다.

초등학교 시절, 행복하게 만화책을 읽었던 기억에, 나는 좋은 만화책을 꼭 구입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의 아이들은 '도서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의 도서관을 떠올리면, 아이들이 행복한 추억에 젖기를 바란다.

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몰라?'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모르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사서선생님이 무섭고,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나름대로는 친절하게 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할런 지.....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이 책에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를 바란다. 내가 '도서관'이 참 좋았으므로, 아이들도 도서관이 참 좋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좀 더 많아져야겠다. 여러 가지로 공리하고,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아직도 나와 도서관과의 만남은 ~ing 중이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학생

버스 안(BUS AN) 아니고 부산(BUSAN)!!!

송훈섭(서울 휘문고등학교 1학년)

항상 학교-학원-집을 반복하는 일상이 너무 지루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든 고1 첫 여름방학. 오래전부터 꼭 가보고 싶던, 영화에서 나오는 사투리들과 장소들이 마치 저에게 놀러오라는 손짓처럼 다가왔었던 저의 첫 자율여행지는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SNS에 같이 여행 떠날 친구들을 찾는 글을 올려 초등 베프 친구 두 명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경비를 최소화 하기위해 시간이 더 들어도 값이

싼 무궁화호를 타고 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첫날(7/31) 일정은 자갈치시장, 감천문화마을, 국제시장, 보수동 벽화골목, 황령산 봉수대였습니다. 자갈치시장 가는 버스를 탔을 때 저희 끼리 가는 법을 몰라 곤란해 하자 시민분들께서 자세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은 웅기증기 모여 있는 주택 벽마다 벽화가 그려져 있어서 마을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쌍둥이가 다녀가 유명한 어린왕자 동상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30분가량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BIFF광장에선 비빔당면, 씨앗호떡, 사탕수수 음료수 등 새로운 주전부리를 먹어볼 수 있어서 맛있는 기억들이 가득합니다. 국제시장은 조명의 거리와 주로 파는 물품들이 모여 있는 점이 색달랐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의 촬영지로 유명한 꽃분이네는 관광객이 모여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도보 5분 거리에 보수동 책방 골목이 있습니다. 여러 책방들이 모여 있고 벽에 책속 명언들이 적혀 있어 걷기만 했는데도 모범생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수동 책방골목을 돌아본 후 해 질 무렵 지친 몸을 이끌며 황령산 봉수대를 향했습니다. 그냥 동네에 있는 가벼운 산이라 생각하고 일정에 넣었는데 산 입구까지 데려다 주신 주민분이 다들 이 시간에 올라가기 버거울 꺼라 하셔서 황령산에서 보는 야경은 포기하고 숙소로 갔습니다.

둘째날(8/1) 일정은 해운대, APEC누리마루, 미포철길, 청사포입니다. 해운대를 지나 APEC누리마루로 가는 길은 바닷바람이 불어 시원하고 또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놀러간 날짜가 축제기간이고 성수기라 해운대에는 물보다 사람들이 더 많아서 들어가 보지 못했네요.

누리마루를 구경하고 미포철길을 갔는데 폐철로이기 때문에 사진 찍기 정말 좋았습니다. 미포철길을 따라 쪽 걷다보면 등대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청사포가 나옵니다. 청사포에 가시게 되면 등대를 향해 가기 전 벽에 적혀있는 청사포에 얽힌 이야기를 꼭 읽으세요. 아주 감동적입니다. 같이 간 친구의 부산삼촌께서 저녁에 고기를 사주시고 광안대교야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안대교의 야경은 말로 다 하지 못할 정도로 멋졌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굳이 해외로 가지 않더라도 국내에 가볼 곳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부산사투리를 들었을 때 부산사람들은 딱딱하고 무뚝뚝한 성격일 거라 생각한 제 편견은 이번 부산 여행을 통해 부산사람들은 표현이 부드럽지 않을 뿐 속은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친절하신 분들로 바뀌었습니다.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여행을 떠나 보는 것도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여행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전부 만족해서 겨울 방학에는 제주도로 가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었던 여행이었습니다.

학도넷 여러분들도 부산으로 놀러가세요~ 강추!!

학도넷 소식

2015년 6월부터 2015년 9까지 학도넷 활동소식입니다.

학도넷 행사

- 2015년 6월 2015 학도넷 사례공모 도서관 이용자시대!!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을 공모
- 2015년 7월 소식지 여름호 발행(총권 35호)
- 2015년 7월 17일 2015 학도넷 창립11주년 기념 심포지움 및 정기총회
- 2015년 8월 10~12일 여름사서연수 연극으로 만나는 세상 (예비텍스트(Free Text)에서 출발하는 과정중심 연극만들기)

신입회원 (2015년 6월~9월)

정회원 : 장범진 임경순 북극곰 송추향 김상미 박은진 김정혜 조영선 강애라 정이순

준회원 : 김정현 박정미 이정욱 임세리

웹회원 : 이선경 김지희 신화영 이원담 전지훈 김재민 토토북 김예선 김나정 김상호 김은희

회비 및 후원내역 (2014년 12월~2015년 5월)

정회원 회비

- 매월 5천원 : 강복숙 강영미 구미숙 권도경 김미숙 김경숙 (보령) 김대경 김선영 김심함 김영신 김은영 김정윤 김정혜 김하나 김효숙 박미영 박준섭 백경숙 백연주 변영이 선보배 성주영 송경영 송숙영 송추향 송혜영 신은미 신정화 신형란 유서연 유정원 윤남미 이 현 이수연 이유정 이찬미 이현애 임민욱 정수연 정영화 정영희 정해선 주상태 차진미 채재현 최선욱 허지연 허지은
- 매월 1만원 : 강애라 강지영 권향미 김경숙 김광재 김숙경 김은영 김순홍 김승주 김신희 김옥위 김중성 김진희 류주형 문예원글로피아 박샘 박영옥 박정해 박지연 백화현 오희애 이경자 이규향 이문숙 장범진 정수현 정영희 정지영 정진수 조길랑 조선희 조은영 조의래 허경림 황봉희
- 매월 3만원 : 도서출판 북극곰
- 연회비 : 박은진(5만) 윤정현 (5만) 김영진(6만) 안재희(10만)

준회원 회비

- 매월 : 김민형(2천) 김송오(2천) 김승현(2천) 손은상(2천) 손은서(2천) 손은재(2천) 송권형(1천) 이제희(2천) 장버리(3천) 장한솔(2천) 최유미(3천)

정기후원 : 문학동네(매월 20만)

광고후원 : 우리교육(30만)

인세후원 : 돌무더기(고래가숨쉬는도서관) 그림작가 이승태 인세 20만, 도란도란책모임(학교도서관저널) 백화현 인세 10만

심포지움 도서후원 : 어린이문화현대, 창비, 사계절, 비룡소, 평사리, 철수와 영희, 낮은산

여름사서연수 도서후원 : 애쓰사랑(낮은산), 도깨비쌀과 쌀도깨비, 개암나무 독서공책(개암나무), 그림책 원화포스터(창비)

신간후원 : 그대 정동진에 가면(30권) 북극곰 / 돌무더기(고래가숨쉬는도서관) 저자 안재희, 이승태 100권 기증

새로 나온 책 보내주신 곳

돌무더기(고래가숨쉬는도서관) / 우리 아빠는 외계인, 몬스터! 몬스터?(북극곰) / 10대와 통하는 새롭게 살려낸 우리말, 우리 입맛을 사로잡은 양념 고추(철수와 영희) / 양철북(양철북) / 내 동생 아니야(길벗어린이) / 예비리데이(민음사) / 과학은 쉽다(비룡소) / 일본환경경관문학(우리교육) / 모르는 아이(문학고지성사) /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떤 고전을 읽었을까? 1, 2(큰북소리) / 사람은 왜 서로 싸울까, 사람은 왜 서로 도울까(낮은산) / 공룡이 뭘래요, 엄마의 바보상자, 달팽이도 멀미해 (청개구리) / 대치동 독토샘은 독서토론논술을 어떻게 가르치는가?(갈대상자) / 인류의 기원(사이언스북스) / 엄마고발 카페(휴먼어린이) / 인형의 비밀,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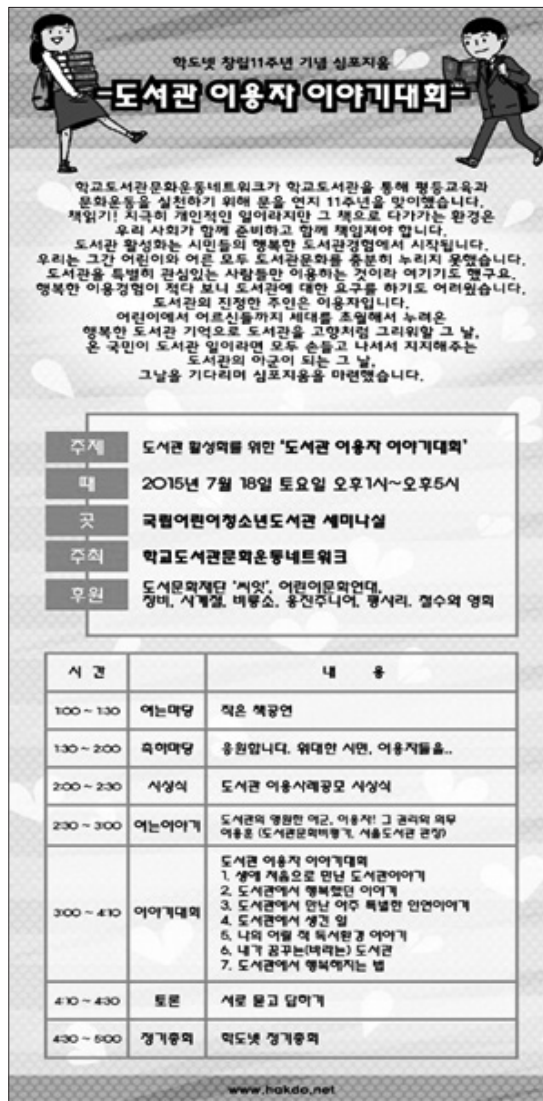
가 잘 몰랐던 신기한 생물이야기(찰리북) / 개그맨(웃는돌고래) / 세상을 바꾼 씨앗(도토리숲) /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미세기) / 지금, 사랑, 위대한 생존(일북) / 공룡돌아, 밥먹자(웃는돌고래) / 그래서 오늘 나는 외국어를 시작했다(청림출판) / 런던이야기(청림출판 추수밭) / 밤의 화사들(한우리문학)

소식지 보내주신 곳

맨발등우(어린이도서관 맨발등우) / 도서관이야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개똥이네 놀이터, 개동이네집(보리) / 책&(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도서관문화(한국도서관협회) / 학부모신문(참교육학부모회) / 놀이하는사람들(사)놀이하는사람들 / 고래가숨쉬는도서관 여름호(고래가숨쉬는도서관) / 학교도서관저널 / 산책(통권10호)

***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은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해 귀하게 쓰겠습니다. 지속적인 광고와 도서후원을 기다립니다.**

학도넷 창립11주년 기념 심포지움 및 정기총회 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이야기대회>



학도넷 창립11주년 기념 심포지움
도서관 이용자 이야기대회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가 학교도서관을 통해 평등교육과 문화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문을 연지 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책임기 차고의 개인적인 일이라지만 그 책으로 다가가는 과정은 우리 사회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도서관 활성화는 시민들의 행복한 도서관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간 어린이와 어른 모두 도서관문화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도서관을 특별히 관심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가도 있고요, 행복한 이용경험이 적다 보니 도서관에 대한 요구를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도서관의 진정한 주인은 이용자입니다. 어린이에서 어른들까지 세대를 초월해서 누려온 행복한 도서관 기억으로 도서관을 고맙게 그리워할 그 날, 온 국민이 도서관 일이라면 모두 손들고 나서서 지지해주는 도서관의 아군이 되는 그 날, 그날을 기다리며 심포지움을 마련했습니다.

주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이용자 이야기대회'
때	2015년 7월 18일 토요일 오후1시~오후5시
곳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세미나실
주최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후원	도서관학재단 '책잇', 어린이문화연대, 창비, 사계절, 비룡소, 흥선주니어, 평사리, 철수와 영희

시 간	내 용
100 - 130	여는마당 작은 책공연
130 - 200	책이마당 응원합니다. 위대한 시민, 이용자들의..
200 - 230	사상익 도서관 이용자사례공모 시상식
230 - 300	어린이이야기 도서관의 영원한 역군, 이용자! 그 권리와 의무 역할은 (도서관학박사, 서울도서관 관장)
300 - 430	도서관 이용자 이야기대회 1. 생애 처음으로 만난 도서관이야기 2. 도서관에서 행복했던 이야기 3. 도서관에서 만난 아주 특별한 언어이야기 4. 도서관에서 생긴 일 5. 나와 어떤 책 독서환경 이야기 6. 내가 꿈꾸는(바라는) 도서관 7. 도서관에서 행복해지는 법
430 - 430	토론 서로 묻고 답하기
430 - 500	정기총회 학도넷 정기총회

www.hakdo.net

학도넷 여름방학 사서연수했습니다.

- 연수명 : <예비텍스트(Free Text)에서 출발하는 과정중심 연극 만들기>
- 책임강사 : 최지영 선생님 연극놀이연구소 놀이대 대표 / 한국교육연극학회 이사(저서 : 드라마스펙리스트가 되자 / 연극과 인간)
-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때 : 2015년 8월 10일(월)~12일(수) (3일간, 10:00~17:00)
- 곳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당

시간/날짜	8월 10일	8월 11일	8월 12일
주제	연극으로의 초대	다양한 연극적 요소 (예비텍스트 하나)를 통해 만나는 과정중심 연극	과정중심 연극을 통한 의미찾기
10~13시	다양한 연극놀이를 통한 연극세계로의 초대	소품과 매체를 활용한 상상과 변형	연극놀이를 통해 이야기만들기 • 전체맥락의 공유 • 중심인물탐구하기 • 새로운 시각에서 이야기 바라보기
13~14시	점심		
14~17시	과정중심연극의 개념과 드라마전문가	소리와 공간 속에서의 즉흥극 만들기	이야기 속의 연극적 요소탐색과 성찰과정 • 모듈별로 정리하고 공유하기
준비물과 활동	움직임과 공간 동영상 ppt 자료	막대, 천, 신문지, 줄(줄넘기), 훌라후프 미적 체험의 요소들 : 즉흥, 변형, 상상, 연극적 요소에 대한 인식	10, 11일의 준비물 모두 활용 핵심질문들 공유하기

학도넷 10월 만남과 바람 다녀왔습니다.

<관동대로 옛길, 구둔치고개 순례>
가을 옛사람의 보폭에 맞추어 걸으며 그 길을 지나다녔을 사람들 이야기로 되짚어 보며 한양에서 강원도로 향하던 옛길, 관동대로 그 첫 번째 고개 구둔치를 44명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곳 : 중앙선 일신역(양평군 지평면) → 구둔역(떼역) → 꿈꾸는 숲 → 구둔치 고개
·때 : 2015년 10월 3일(토) 오전 11시 30분~오후 6시 30분

'살을 위한 인문학' 진행중입니다.

(1강) 9월 8일	중등 독서교육과 글쓰기교육을 위한 새로운 커리큘럼 - 한수영(중앙대 교양학부 교수)
(2강) 9월 22일	학교와 협력해서 준비하는 마을 축제와 공연 기획 - 주홍(그림책 작가, 화가, 전시기획자)
(3강) 10월 6일	책 읽는 마을과 지역 내 문화 아지트로 만드는 현채방 운영 분투기 - 윤성근(이상한나라의현채방 운영)
(4강) 10월 20일	하자센터의 운영 철학과 현재 활동, 학교에 접목할 수 있는 실용교육 - 박형주(영등포하자센터 기획부장)
(5강) 11월 10일	학생과 어른이 함께하는 우리 마을 조사 및 문화역사기행 준비 방법 - 이현균(지리학자)
(6강) 11월 24일	청소년문화정보센터 건립기와 현재 활동, 학교와의 협력 방안 - 이승훈(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장)

-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 서울모임
- 주관 :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 서울모임
- 후원 : 도서문화재단 '씨앗'
- 때 : 2015년 9월 8일(화)~11월 24일(화) (격주 화요일, 18:30~21:30)
- 곳 : 책읽는사회문화재단 강의실(서울 4호선 혜화역)
- ※ 4강은 영등포 하자센터, 6강은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서 진행

학도넷 11월 만남과 바람

김용택 선생님의 강이야기, 문학이야기를 만나러 갑니다. 섬진강가를 천천히 함께 걸으며 아름다운 강과 산, 시이야기를 합니다.
·때 : 2015년 11월 14일(토요일)
·곳 : 전북 임실 덕치면 구담마을 → 천담마을 → 진메마을

순수 시민단체인 학도넷의 재정은 회원님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후원금과 회비는 학도넷의 재정자립과 안정된 활동을 보장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은행 356201-04-173422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학도넷)